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4.3.8(금) ~ 2024.3.14(목)

제공일시 2023 03 22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4.3.8(금) ~ 2024.3.14(목)

제공일시 2024 03 22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1. 미국 SEC, 상장사 탄소배출 공시 의무화 방안 채택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상장사들의 탄소배출량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채택함. 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SEC는 이날 상장 기업에 특정 기후 관련 리스크와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를 의무화하는 규칙의 도입을 찬성 3대, 반대 2로 통과시킴
- 상장사들은 자사 사업 과정에서 직접 배출하는 이른바 'Scope(스코프) 1' 배출량과 전력이나 기타 에너지 사용으로 간접 배출하는 '스코프 2' 배출량을 각각 파악해 공개할 의무를 지게 됨
- 다만, 원자재 조달처나 제품 판매처 등 공급망 전체를 통한 배출량인 '스코프 3'는 초안에는 담겼지만, 최종적으로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됨
- 이에 따라 소규모 상장사를 뺀 미국 상장사들은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탄소배출량을 공개해야 함. 미국에 상장된 외국 기업도 그 대상임

(이투데이 2024.3.7) 변호선 기자

2. '일회용 용기' 퇴출 앞둔 EU... 외국산 재활용 플라스틱 수입도 막나

- 유럽연합(EU)이 일회용 용기 퇴출 등 플라스틱 포장재 규제 논의 과정에서 외국산 재활용 플라스틱 수입 금지 문제를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음
-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EU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지난 4일(현지시각) 잠정 합의한 제품 포장재와 포장재 폐기물 규제안 가운데, 외국산 재활용 플라스틱 수입을 사실상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 EU 집행위원회와 독일·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가 반대하고 있다고 12일 보도함
- 잠정 합의 이후 EU 집행위원회와 일부 회원국에서는 EU 기준을 준수하는 외국 재활용 플라스틱 생산업체가 거의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는 사실상의 수입 금지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섬

(한겨레 2024.3.13) 신기섭 기자

3. 일본, 해상 풍력을 배타적경제수역(EEZ) 설치 가능 법률 개정

- 일본 정부가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해양 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 설치 및 허가, 구역 지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2일 발표함
- 일본 경제산업성은 보도 자료를 통해 "해상 풍력 발전은 재생 가능 에너지 비장의 카드로 2030년까지 1000만킬로와트(KW), 2040년까지 3000만~4500만KW 달성이 목표"라고 전함
- 법률 개정으로 인해 EEZ에도 해상 풍력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돼 목표 달성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함

(시타임즈 2024.3.12) 이윤선 기자

4. "EU, '화석연료 기업 보호 논란' 에너지현장조약 탈퇴키로"

- EU 회원국들이 화석연료 기업을 보호하는 데 악용된다는 논란이 꾸준히 제기된 에너지현장조약(ECT)을 탈퇴하기로 했다고 6일(현지시간) EU 전문매체 유렉티브가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EU 각국 대사들은 이날 열린 회의에서 ECT 탈퇴 제안에 잠정 동의했으며, 7일 장관급 회의에서 탈퇴 입장을 공식 채택할 예정임
- 이후 내달 유럽의회에서 탈퇴 확정을 위한 찬반 투표가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고 이 매체는 전함
- 탈퇴가 공식화하면 이후 실시된 화석연료 개발 프로젝트를 포함한 모든 에너지 분야 투자는 조약상 분쟁 청구권을 부여받을 수 없게 됨

(연합뉴스 2024.3.7) 정빛나 기자

1.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민·관 뭉친다… 2028년 목표로 착수

- 연내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를 포함한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 사업이 본격 시작됨. 이 사업에는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가 모두 참여함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일 민관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에 참석해 올해 민·관이 함께 대응할 핵심 과제들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함
- 정부는 2028년까지 총 1172억원을 투입해 전고체, 리튬메탈, 리튬황 배터리 등 3가지의 유망 배터리를 개발할 계획임

(뉴스 2024.3.11) 임소현 기자
(브릿지경제 2024.3.11) 이원배 기자

2. 산업부, 5월 ‘초격차 프로젝트’ 로드맵 완성… 내년 AI 개발 R&D 중점 투자

- 정부가 11개 분야 40대 ‘초격차 프로젝트’의 민간주도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오는 5월까지 40대 프로젝트의 로드맵을 완성하기로 함
- 내년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은 초격차 프로젝트를 비롯해 인공지능(AI)과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미래차용 초고속 통신반도체 등의 개발 투자에 주력할 예정임
- 산업통상자원부가 11일 개최한 제1차 전략기획투자협의회 회의에서는 △초격차 프로젝트 추진계획 △2025년 산업·에너지 R&D 투자방향 △2024년 산업·에너지 R&D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등이 심의 안건으로 상정됨
- 오는 5월까지 40대 초격차 프로젝트의 로드맵을 완성하고, 10월에는 신규 프로젝트의 추가 발굴·확정을 마무리 지을 계획임

(뉴스핌 2024.3.11) 김기람 기자

3. 회계기준원, ‘ESG 공시기준 재무정보’ 위한 투자자 전문위원회 운영

- 한국회계기준원이 투자자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함
- 한국회계기준원은 11일 “회계기준원 내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따른 재무정보의 유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투자자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자문을 받고자 한다”고 밝힘
- 1차 킥오프 회의는 3월 중 개최 예정임. 투자자 전문위원회는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가 이뤄지도록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하 KSSB 기준)과 국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하 ISSB 기준)에 대해 투자자 입장의 자문을 제공함

(서울경제 2024.3.11) 송이라 기자

4.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차기 회장직 김재홍 전 산업부 차관 내정

- 수소융합얼라이언스 문재도 회장의 후임으로 김재홍 전 산업자원부 차관이 내정됨
- 13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수소융합얼라이언스는 18일 이사회를 열고 21일 김재홍 전 산업부 차관을 선임할 예정임
- 김재홍 전 차관은 산업부에서 과장 및 국장을 지냈으며 이명박정부에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지식경제부(현 산업부) 성장동력실장을 역임함. 박근혜정부 출범 당시 산업부에서 1차관을 지냄. 공직에서 물러난 뒤엔 코트라 사장을 거쳐 모교인 한양대학교에서 특훈교수, 연구교수를 맡고 있음

(아시아투데이 2024.3.13) 이서연 기자

5.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본격화… 국내 처리·소각 실증 목표

- 정부가 사용후핵연료의 재활용을 추진함. 원자력발전의 부산물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지하 500m에서 인간과 영구 격리해야 하는데, 처리·소각 기술을 활용해 다시 연료화하고 에너지로 전환하는 게 목표임
- 핵연료 주기가 늘고 고준위방폐물 양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음. 다만, ‘핵 비확산’ 보증과 미국의 동의는 숙제임
- 13일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소각 분야 로드맵’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까지 관련 분야 기술을 확보하고 2034년까지 실증시설 구축, 2038년까지 실증을 완료한다는 계획임

(머니투데이 2024.3.13) 조규희 기자

1. “미 정부, 자국 내 TSMC 공장 건립에 6조원대 보조금”

- 대만 TSMC가 애리조나주의 칩 제조 공장 건립에 미국 정부로부터 50억달러(약 6조6000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을 예정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함
- 블룸버그통신은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TSMC가 미국의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약칭 반도체법)이 제공하는 대출과 보증도 활용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임
- 애플 아이폰에 장착되는 반도체 등을 계약 생산하는 TSMC는 애리조나주 피닉스 공장에 약 400억달러(약 52조6000억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그대로 이행되면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중 하나로 기록될 전망이다

(딜라이트 2024.3.9) 박퍼터슨 기자

2. 초고속 충전 배터리 스타트업 ‘스토어닷’, 중국 EVE 에너지와 전략적 파트너십

- 초고속 충전 배터리 셀 상용화와 대량 생산을 위한 합종연횡이 한창임
- 이스라엘 스타트업 스토어닷(StoreDot)이 중국의 셀 제조업체인 EVE 에너지(EVE Energy)와 이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11일(현지시간) 발표함
- 스토어닷은 지난 1월 5분 만에 전기차 배터리를 충전해 100마일(약 160km)을 주행할 수 있는 배터리 셀 ‘100in5 XFC’를 공개한 바 있음
- 스토어닷의 COO인 아미르 티로쉬는 “이제 우리는 초고속 충전 셀의 대량 생산에 대한 야심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다”고 말함

(임팩트온 2024.3.13) 유미지 기자

3. 스위스 철강, SMS그룹과 협력해 첨단 배출가스 추적 능력 혁신

- 스위스 철강 그룹이 스위스 에멘브뤼케에 위치한 스틸텍 생산 시설에 SMS그룹의 비리디스 카본 소프트웨어를 통합해 중추적인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를 시작함
- 이번 협력은 첨단 배출가스 추적 및 감축 능력을 혁신하기 위한 것임
- 철강 제품의 탄소 발자국을 계산하도록 설계된 이 도구는 스틸텍에게 다양한 생산 단계에서 CO2 배출을 모니터링하고 보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함

(글로벌이코노믹 2024.3.7) 김진영 기자

4. 애플은 포기한 전기차, 샤오미 28일 출시, 판매 돌입

- 대표적인 중국 스마트폰 업체 샤오미가 첫 전기차를 오는 내 놓고 28일부터 판매에 들어감. 2021년 3월 전기차 시장 진출을 선언한 지 3년 만임
- 블룸버그는 12일 샤오미가 전기차 SU7(Speed Ultra 7·중국명 수치) 시리즈를 중국 29개 도시 59개 매장에서 판매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함. 자세한 차 가격은 밝히지 않음
- 샤오미는 중국업체 비야디(BYD)와 미국 테슬라가 주도하는 중국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 그동안 수십억 달러를 투자함

(SBS비즈 2024.3.12) 송태희 기자

5. AI의 ‘일자리’ 습격 시작됐다… IBM, 마케팅 직원 감원

- 미국 컴퓨터 제조업체 IBM이 마케팅과 커뮤니케이션 부서 직원을 줄일 예정임
- IBM은 수천개의 일자리를 AI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이라 앞으로 감원 소식이 이어질 것으로 보임
- CNBC는 12일(현지시간) 조나단 아다셰크 IBM 최고커뮤니케이션책임자(CIO)가 이 부서 직원들과 회의를 통해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부서 인력 축소안을 발표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함.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공개되진 않음

(한국경제 2024.3.13) 신정은 기자

1. LG전자, 로봇사업 힘준다… 美 베어로보틱스에 800억원 투자

- LG전자가 전략적 투자를 통해 미래 신사업 중 하나로 육성 중인 배송, 물류 등 산업용 로봇 사업의 역량 고도화에 속도를 낸다고 12일 밝힘
- LG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 레드우드시티에 본사를 둔 AI 기반 자율주행 서비스로봇 스타트업 베어로보틱스에 6천만달러(약 800억원)를 투자해 베어로보틱스의 지분을 취득하는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함
- 이번 지분 투자는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재무적 투자가 아니라 사업 포트폴리오 고도화 관점에서 진행하는 전략적 투자의 일환이라고 LG전자는 설명함

(SBS비즈 2024.3.12) 신채연 기자

2. SK에코플랜트 자회사 TES, 日 대표 리스 기업과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공동 개발 추진

- SK에코플랜트 자회사 테스(TES)가 일본 대표 리스 기업과 손잡고 일본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듦
- 테스는 11일 일본 대표 리스 기업인 스미토모 미쓰이 파이낸스 앤 리싱(Sumitomo Mitsui Finance and Leasing Company, 이하 SMFL)과 SMFL의 렌탈 전문 자회사 SMFLR(SMFL Rental Company)과 함께 '일본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힘
- 이번 협약을 통해 3사는 일본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선점을 위해 각 사의 강점을 토대로 강력한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계획임

(디지털조선TV 2024.3.12) 김종훈 기자

3. 에코프로, 올해 포항에 1조2000억원 투자… 4캠퍼스 조성 박차

- 에코프로가 올해 포항캠퍼스를 중심으로 국내에만 약 1조2000억원의 투자를 단행함
- 폐배터리 재활용부터 전구체, 수산화리튬 제조, 양극재 생산까지 이차전지 생태계 조성을 고도화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미래 시장도 선점한다는 계획임
- 에코프로는 10일 올해 총 1조8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힘. 전구체 공장 증설에 6900억원을 투자하고, 양극재와 수산화리튬 공장 증설에 각각 3200억원과 1600억원을 투자함. 산업용가스 생산에도 1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함
- 이번 투자로 올해 상반기 중 에코프로이엠의 하이니켈 양극재(NCA) 생산공장 CAM8과 에코프로이노베이션의 수산화리튬 생산공장 LHM2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임. 또, 에코프로머티리얼즈의 전구체 공장인 CPM과 RMP 3·4 공장을 각각 건설함

(디지털타임스 2024.3.10) 박한나 기자

4. 고려아연, 전구체 공장 시운전 추진… 제련 노하우로 배터리 소재 사업 '속도'

- 고려아연이 이달 중으로 전구체 공장의 시운전을 추진함. 제련 사업을 기반으로 쌓아온 노하우를 배터리 소재 분야로 본격 확장함
- 10일 고려아연에 따르면, 울산에 위치한 전구체 공장이 완공되면서 이달 중으로 시운전에 나섬
- 이 공장에서 생산될 전구체는 시운전과 테스트를 거쳐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고객사로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해짐

(CEO스코어데일리 2024.3.10) 박대한 기자

5. 씨에스윈드, 베트남 법인 증설… 해상 풍력타워 시장 '정조준'

- 글로벌 풍력타워 업체 씨에스윈드가 베트남 법인 해상 풍력타워 증설을 완료함.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 해상 풍력타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임
- 이번 증설은 2022년 지멘스 가메사와 체결한 3조8000억원 규모의 해상 풍력타워 공급계약을 바탕으로 추진됨. 지난해 4월에 시작돼 올 3월 완료됨
- 생산 가동은 올 하반기 본격화될 전망이다. 증설을 마친 베트남 법인은 연간 36만톤의 육·해상 풍력타워 생산 역량을 확보함

(머니S 2024.3.13) 김동욱 기자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 기간: 2024.3.8(금) ~ 2024.3.14(목)

제공일시 2024 03 22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영국, 재생에너지 경매에 사상 최대 10억파운드 예산 발표

- 지난 7일(현지시각) 영국 정부가 재생에너지 계획에 사상 최대 규모의 자금 지원을 발표했다고 파이낸셜타임즈(FT), 텔레그래프 등 해외 언론이 보도함
- 영국 정부는 다가오는 재생에너지 차액결제거래(Contract For Difference, CFD) 경매 라운드에 10억파운드(약 1조6900억원) 이상을 투입할 예정임
- 제레미 헌트 총리는 올해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 개발자 입찰에서 지난해 대비 4배의 지원금을 배정한 것으로 알려짐. 그 이유는 지난 2023년 영국 정부의 지원 수준이 너무 낮아 해상풍력 발전소 개발자들이 전혀 입찰하지 않았던 경험 때문임. 올해 영국 정부는 2024년 봄 예산에서 해상풍력 프로젝트에만 8억파운드(1조3570억원)를 할당한 것으로 알려짐
- 이번 대규모 지원은 불안정한 글로벌 가스 가격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고, 장기적으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에너지 요금을 낮추려는 정부 계획의 일부로 보임
- 할당된 6차 예산은 다음과 같음. △육상 풍력 및 태양광 등 확립된 기술에 대해 1억2000만파운드(약 2035억4400만원) △부유식 해상풍력, 지열 등 신기술 1억500만파운드(약 1780억원) △해상풍력 8억파운드(약 1조3570억원) 등임
- 영국 정부가 이번 해상풍력 투자에 전년 대비 4배나 예산을 늘린 것은 지난해 11월 해상풍력과 부유식 해상풍력의 최고 가격 인상에 따른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짐. 영국이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프로젝트 5개를 보유한 풍력발전 분야의 선구자로 남기 위한 야망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음을 의미함
- 또한 이번 CFD 경매 라운드 투자는 영국의 재생가능한 전력 생산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재생 전력 가격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영국은 2010년 이후 공공 및 민간에서 이루어진 저탄소 투자가 3000억파운드(약 508조8600억 원)에 달함. 2030년까지 영국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 1000억파운드(약 169조6200억원)의 민간 투자가 추가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해상풍력 분야에서 9만개의 일자리를 포함해 최대 48만 개의 일자리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됨
- 이와 별도로 수상은 지난 주 영국의 녹색 산업 엑셀러레이터에 1억2000만파운드(약 2035억4400만원)를 추가로 지원하며 녹색 산업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승인함. 이를 통해 총자금은 10억파운드(약 1조 6900억원) 이상이 소요되며, 청정 에너지 공급망 전반에 걸쳐 고급 제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임
- 클레어 쿠틀뉴 영국 에너지부 장관은 “더 많은 자국산 녹색 에너지를 확보함으로써 휘발성 가스의 가격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전함

(임팩트는 2024.3.11) 최동훈 기자